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등명대 등록문화재로 시급히 지정해 보존해야"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 인터뷰

데스크승인 2013.03.31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2008년 '아름다운 불빛, 제주 등명대'를 펴낸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그동안 도대불로 널리 알려졌지만, 공식 명칭은 등명대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도대불의 어원은 '뚝대불' 등 다양하나 건립 시기에 미뤄 등대의 일본어인 '도우다이'가 토착화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약 100년 전 북촌리 비문에는 등명대(燈明臺)라고 명명됐고, 마을 주민들이 손으로 직접 만들면서 제주인의 삶과 혼이 담긴 만큼, 일본어에서 유래된 도대불 대신 '등명대'라고 널리 불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역사적 산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파괴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는 관이 주도한 것이 아닌 어민들이 주체가 돼 자발적으로 건축되고 관리된 점, 그 모양과 쓰임새가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문화·역사를 반영한 점을 미뤄 문화재로서 보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아 있는 등명대는 문화자원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해안도로 개설 및 포구 개발로 수난을 겪고 있다.

애월리 등명대는 고증 없이 시멘트로 보수하는 등 흉물이 됐다가 마을 주민들이 다시 복원해 놓았다. 개발 바람에 밀려 사라지거나 무너진 등명대 가운데 애월·구엄·신엄·귀덕·두모·온평 포구에 있던 것은 새롭게 축조해 복원해 놓았다.

고산리 등명대는 자구내 해안도로에 관광객들이 밀려들면서 최근 차량이 충돌, 금이 가는 등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호 울타리마저 없는 이곳에는 수시로 차량들이 드나들고 주차하면서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김 교수는 “복원한 것은 원형이 남아 있더라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시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가 없던 시절 등명대는 밤바다의 길잡이를 넘어 제주인들의 고단했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문화재 지정이 요구되고 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